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 세차게 라오른다

전방척후대, 그 믿음 가슴깊이 새기고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 로동계급의 가슴속에는 남다른 영예와 긍지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안겨주신 힘있는 건설부대, 사회주의건설의 전방척후대라는 고귀한 칭호이다. 연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올해에도 이 영예로운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대고조전투장마다에 자랑찬 위훈을 새기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어랑천발전소건설장,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새용광로발전소, 라선시피해복구전투장, 서두수발전소 물길관보강공사...

기술집단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수문들과 압력철타를 비롯한 유중한 강철구조물들이었다.

이 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발전소완공일이 좌우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기에 발전소건설장에서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에서 제작한 강철구조물들이 도착하기가 손꼽아 기다리고있었다.

하지만 수백이나 되는 유중한 강철구조물들을 특루로 수백이나 떨어진 현지까지 수송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아닐수 없었다. 가파로운 명틀과 깊은 협곡이 갈길을 가로막고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단 말인가. 이 물음앞에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사회의주의건설의 전방척후대, 그 믿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이들의 심장깊이 새기고는 힘있는 건설부대대내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을 실천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오직 하나의 신념, 당이 준 과업을 자기일내에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결사관철의 정신이 맥박치고있었다.

이제만이 아니었다. 라선시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힘있는 건설부대, 사회주의건설의 전방척후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였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재능과 힘을 합치고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공사량이 방대한 2개의 다리를 30여일동안에 건설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이 준 영예로운 과업을 받아안은 때로부터 150여일, 이들이 맞고본 땀과 밤은 어떻게 흘려왔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꽃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있습니다.」

지난 8월, 연합기업소의 로동계급앞에는 자기들이 제작한 설비들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 보내주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제기되었다.

충정제관공장, 제관조립공장, 시공조립제관공소를 비롯한 연합기업소의 전체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수문들과 압력철타를 비롯한 유중한 강철구조물들이었다.

이 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발전소완공일이 좌우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기에 발전소건설장에서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에서 제작한 강철구조물들이 도착하기가 손꼽아 기다리고있었다.

이제만이 아니었다. 라선시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힘있는 건설부대, 사회주의건설의 전방척후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였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재능과 힘을 합치고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공사량이 방대한 2개의 다리를 30여일동안에 건설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재능과 힘을 합치고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공사량이 방대한 2개의 다리를 30여일동안에 건설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재능과 힘을 합치고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공사량이 방대한 2개의 다리를 30여일동안에 건설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이 준 영예로운 과업을 받아안은 때로부터 150여일, 이들이 맞고본 땀과 밤은 어떻게 흘려왔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꽃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있습니다.」

기술집단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수문들과 압력철타를 비롯한 유중한 강철구조물들이었다.

이 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발전소완공일이 좌우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기에 발전소건설장에서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에서 제작한 강철구조물들이 도착하기가 손꼽아 기다리고있었다.

이제만이 아니었다. 라선시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힘있는 건설부대, 사회주의건설의 전방척후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였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재능과 힘을 합치고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공사량이 방대한 2개의 다리를 30여일동안에 건설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재능과 힘을 합치고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공사량이 방대한 2개의 다리를 30여일동안에 건설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재능과 힘을 합치고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공사량이 방대한 2개의 다리를 30여일동안에 건설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재능과 힘을 합치고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공사량이 방대한 2개의 다리를 30여일동안에 건설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재능과 힘을 합치고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공사량이 방대한 2개의 다리를 30여일동안에 건설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늘어나는 연간계획완수자대렬

9월 방직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일을 가장 열렬히 애써서 하고 오직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있는 지혜와 정력을 다하여 충실히 일해야만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로력적성과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9월방직공장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년초부터 로동자들이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도록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왔다.

당조직에서는 현장경제선동 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것과 함께 매달 혁신자축하모임을 의의있게 진행하면서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숙의와 방송을 통한 혁신자축하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 신천박물관람판사업 등을 의의있게 조직하였다.

일군들은 아버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정방공, 직포공 처녀들이 학습생활에서 불편이 있을새라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었다.

공장합숙의 봉사자들은 정방공, 직포공처녀들의 생활상도 성의있게 차려주고 매일 풍우유와 후방물자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 봉사활동을 벌였다.

중환원 자료에 의하면 11월 중순까지 정방공들인 홍성녀, 차신향, 주은경, 직포공들인 최인실, 김정심, 김유경동무를 비롯한 150명의 로동자들이 년간계획을 완수하였다. 그리고 정방공 리춘애, 직포공 김정일동무를 비롯한 15명의 로동자들이 2년분계획을 완수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지난 5월에 준비직장의 기대공리순회동무가 공장적으로 제1면지 년간계획을 완수한데 이어 150명의 년간계획완수자, 15명의 2년분계획완수자가 나온것은 정말 자랑할만 한 일이다.

당조직에서는 현장경제선동 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것과 함께 매달 혁신자축하모임을 의의있게 진행하면서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숙의와 방송을 통한 혁신자축하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 신천박물관람판사업 등을 의의있게 조직하였다.

일군들은 아버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정방공, 직포공 처녀들이 학습생활에서 불편이 있을새라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었다.

당조직에서는 현장경제선동 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것과 함께 매달 혁신자축하모임을 의의있게 진행하면서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숙의와 방송을 통한 혁신자축하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 신천박물관람판사업 등을 의의있게 조직하였다.

일군들은 아버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정방공, 직포공 처녀들이 학습생활에서 불편이 있을새라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국도처에 마련해놓은 축산간지와 양어지, 온실과 버섯생산간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먹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한 드높은 열의에 힘입어 해주버섯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버섯생산에서 현안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과학기술을 앞세워 생산을 1.5배로

해주버섯공장에서

의 버섯을 수확하였다. 이것은 종전에 비하여 1.5배나 되는 자랑찬 성과이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더 많은 버섯을 생산하여 인민 생활향상에 실지로 이바지하기 위하여 버섯생산에 적극 다그치고있다.

도당위원회는 지도밑에 도농촌정리위원회 일군들이 공장에 수시로 내려와 결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풀이하면서 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공장의 일군들은 버섯생산에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있다. 일군들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같은 원료를 가지고도 더 많은 버섯을 생산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지배인 리은수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보이라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으로 기술자, 기능공들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한 단위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짧은 기간에 설계를 완성하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버섯농사 짓게 하였다. 그리고 필요인 장비들을 자체로 생산하고있었다. 결국 년간 수백의 원료를 절약하면서 버섯을 창조하였다.

보이라개조로 많은 로력과 180여의 식량을 절약하면서



시대를 격동시키는 기적을 창조한 위력한 정치사업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 당위원회

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 로동계급이 당정책인 혼돈에 드린 자랑찬 로력적성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정치적참모부이며 그 기본업무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실행하는것입니다.」

연합기업소의 간석지건설작업이 광범하는 자연의 횡포를 과감히 이겨내며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한 비상한 현실을 이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당사업을 화신적으로 확고히 전진시켜 나가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천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키는데 선차적힘을 넣었다.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적혀있는 수첩을 가지고다니며 학습하는 기풍이 세워졌다. 문답식학습경연도 당, 근로단체조직별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학습을 통하여 조선은 결심한다 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조야박은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한몸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섰다.

동맹군의 안전지에서 뻗어나오는 제방부러지 선화지구에서 뻗어나오는 제방을 바라보는 당정책인 혼돈의 마음은 무거웠다. 10월 초까지는 이제 다 잊었다. 과연 이 기간에 나머지 200여m구간의 제방을 다 쌓을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맴돌았던것이다.

흥건도간석지 3호제방 1차물막이공사는 올해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었다. 기공소의 물질적로태와 잠재력을 최대한 타산하여 세운 높은 목표였다. 그러한 전투투수수행날짜가 앞당겨진다는 사연이 있었다.

하나는 것이었다. 두루기 물막이 구간이 좁아질수록 날마다가 어떻게 기술을 부릴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었다것이였다.

그무렵에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된 서현철동무였다. 건설자들의 가슴속에 신념의 제방부러 썩자! 이것이 대중의 정신력발동에서 당위원회가 배어낸 진자였다.

로동자들이 한울타리안에서 일하며 생활하는 공작들과는 달리 전투장이 수습리구간에 펼쳐져있고 작업이 분산적으로 진행되는 조건에 맞게 당위원회에서는 정치사업을 방법론있게 전개하였다.

지난 8월 당중앙근로위원회 비상학대회의가 진행되고 인우들에 대한 친안회의의 보복의지가 용암처럼 끓어올라버렸다. 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 학습강사, 강연강사를 비롯한 초급

선전일군들로 신천박물관람관을 조직하였다. 시간과 장소,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선전선동활동을 능동적으로 벌일수 있는 그들을 발동하여 정치사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참관을 마치고 돌아온 초급선전일군들은 전투장의 곳곳에서 격의와 열의가 넘쳐나는 현실을 보고는 대충정지사업을 드세게 벌였다. 작업기를 틀고도 끝진공들과 일하면서 미세의 야수들을 폭로단죄하였고 운전자들과 함께 제방길을 달리면서도 계급원순위를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심어주었다.

격동의 이 날 제방건설속도가 2배이상 높아졌다다는 사실은 사상사업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광범하는 날마다를 길들이며 뻗어나간 수습리의 제방은 일군이 전투현장에 몸을 잡고그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에 힘있게 전개할 때를 겨울수만 있을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당위원회에서는 선화지구에서 뻗어나오는 제방을 바라보는 당정책인 혼돈의 마음은 무거웠다. 10월 초까지는 이제 다 잊었다. 과연 이 기간에 나머지 200여m구간의 제방을 다 쌓을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맴돌았던것이다.

흥건도간석지 3호제방 1차물막이공사는 올해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었다. 기공소의 물질적로태와 잠재력을 최대한 타산하여 세운 높은 목표였다. 그러한 전투투수수행날짜가 앞당겨진다는 사연이 있었다.

하나는 것이었다. 두루기 물막이 구간이 좁아질수록 날마다가 어떻게 기술을 부릴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었다것이였다.

그무렵에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된 서현철동무였다. 건설자들의 가슴속에 신념의 제방부러 썩자! 이것이 대중의 정신력발동에서 당위원회가 배어낸 진자였다.

로동자들이 한울타리안에서 일하며 생활하는 공작들과는 달리 전투장이 수습리구간에 펼쳐져있고 작업이 분산적으로 진행되는 조건에 맞게 당위원회에서는 정치사업을 방법론있게 전개하였다.

지난 8월 당중앙근로위원회 비상학대회의가 진행되고 인우들에 대한 친안회의의 보복의지가 용암처럼 끓어올라버렸다. 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 학습강사, 강연강사를 비롯한 초급

선전일군들로 신천박물관람관을 조직하였다. 시간과 장소,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선전선동활동을 능동적으로 벌일수 있는 그들을 발동하여 정치사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참관을 마치고 돌아온 초급선전일군들은 전투장의 곳곳에서 격의와 열의가 넘쳐나는 현실을 보고는 대충정지사업을 드세게 벌였다. 작업기를 틀고도 끝진공들과 일하면서 미세의 야수들을 폭로단죄하였고 운전자들과 함께 제방길을 달리면서도 계급원순위를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심어주었다.

격동의 이 날 제방건설속도가 2배이상 높아졌다다는 사실은 사상사업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광범하는 날마다를 길들이며 뻗어나간 수습리의 제방은 일군이 전투현장에 몸을 잡고그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에 힘있게 전개할 때를 겨울수만 있을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업을 놓고

사업을 놓고

하는 한편 온 건설장이 경쟁열풍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도록 조직정지사업을 짜고들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지난 시기에도 사업소단위로 경쟁을 자주 조직하였지만 웅담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것은 광범한 대중의 적극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이 사업이 통이 크게 벌어지지 못한데 원인이 있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지난 시기에도 사업소단위로 경쟁을 자주 조직하였지만 웅담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것은 광범한 대중의 적극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이 사업이 통이 크게 벌어지지 못한데 원인이 있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지난 시기에도 사업소단위로 경쟁을 자주 조직하였지만 웅담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것은 광범한 대중의 적극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이 사업이 통이 크게 벌어지지 못한데 원인이 있었다.

후방사업도

후방사업도

연합기업소에서는 이룩된 성과의 비결의 하나는 단위의 특성에 맞게 후방사업에 짜고들어서 진행한데 있다.

간석지건설자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기간은 한해치고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에 맞게 당위원회에서는 건설자들에게 현혹의 정을 담아 따뜻한 잠자리와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주는 것을 후방사업의 중자로 틀어쥐었다.

특성에 맞게

특성에 맞게

고, 정든 고향처럼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었다.

이렇게 되어 현장학습설계자 정든 고향처럼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이룩된 성과의 비결의 하나는 단위의 특성에 맞게 후방사업에 짜고들어서 진행한데 있다.

간석지건설자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기간은 한해치고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에 맞게 당위원회에서는 건설자들에게 현혹의 정을 담아 따뜻한 잠자리와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주는 것을 후방사업의 중자로 틀어쥐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이룩된 성과의 비결의 하나는 단위의 특성에 맞게 후방사업에 짜고들어서 진행한데 있다.

간석지건설자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기간은 한해치고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에 맞게 당위원회에서는 건설자들에게 현혹의 정을 담아 따뜻한 잠자리와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주는 것을 후방사업의 중자로 틀어쥐었다.

간석지건설자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기간은 한해치고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에 맞게 당위원회에서는 건설자들에게 현혹의 정을 담아 따뜻한 잠자리와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주는 것을 후방사업의 중자로 틀어쥐었다.

간석지건설자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기간은 한해치고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에 맞게 당위원회에서는 건설자들에게 현혹의 정을 담아 따뜻한 잠자리와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주는 것을 후방사업의 중자로 틀어쥐었다.

간석지건설자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기간은 한해치고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에 맞게 당위원회에서는 건설자들에게 현혹의 정을 담아 따뜻한 잠자리와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주는 것을 후방사업의 중자로 틀어쥐었다.

간석지건설자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기간은 한해치고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에 맞게 당위원회에서는 건설자들에게 현혹의 정을 담아 따뜻한 잠자리와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주는 것을 후방사업의 중자로 틀어쥐었다.

간석지건설자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기간은 한해치고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에 맞게 당위원회에서는 건설자들에게 현혹의 정을 담아 따뜻한 잠자리와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주는 것을 후방사업의 중자로 틀어쥐었다.

간석지건설자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기간은 한해치고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에 맞게 당위원회에서는 건설자들에게 현혹의 정을 담아 따뜻한 잠자리와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주는 것을 후방사업의 중자로 틀어쥐었다.

간석지건설자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기간은 한해치고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에 맞게 당위원회에서는 건설자들에게 현혹의 정을 담아 따뜻한 잠자리와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주는 것을 후방사업의 중자로 틀어쥐었다.

간석지건설자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기간은 한해치고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에 맞게 당위원회에서는 건설자들에게 현혹의 정을 담아 따뜻한 잠자리와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주는 것을 후방사업의 중자로 틀어쥐었다.

간석지건설자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기간은 한해치고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에 맞게 당위원회에서는 건설자들에게 현혹의 정을 담아 따뜻한 잠자리와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주는 것을 후방사업의 중자로 틀어쥐었다.

무엇을 노린 무기판매놀음인가

미국이 남조선에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을 타격할수 있는 신형《하퉁》미사일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미국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국방성산하 국방안보정책국은 국무성이 1억 1000만달러의 신형《하퉁》미사일을 남조선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는것을 공개하였다. 미국 보잉회사가 제작하는 이 미사일은 이전에 남조선에 팔아먹은 《하퉁》미사일보다 사거리가 2배 늘어난 최신형이라고 한다.

이것은 남조선군부추진력을 북남대결에 더욱 부추기고 북남관계발전에 왜기를 막으며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엄중한 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세상에 공인된바와 같이 남조선은 미국이 주권하는 국통체제의 핵진초기, 위험천만한 화약고이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미국은 남조선에 새로운 무기들을 계속 들어 밀고있다.

하지만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보호》를 제창하는 미국이 신형미사일을 남조선에 팔아넘기려는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는가.

지금 우리의 주동적인 조처에 의하여 북과 남사이에는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있다. 이런 속에서 미국은 무기판매놀음으로 남조선군부추진력을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에로 내몰고있다.

미국이 무기판매를 통하여 노리는 목적은 조선민족끼리 서로 대결하게 하자는데 있다.

상전이 넘겨져 첨단무기들을 장비하게 되면 가족이나 군사적도발에 광분하고있는

남조선군부장관들이 전쟁소동에 분별없이 날뛰는것은 볼보듯 명백하다.

가소로운것은 미국이 남조선에 첨단무장장비들을 들이민다는것이 우리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으로 된다고 뽐낼수있고 있는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저들의 범죄적인 무기판매 및 판매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황당한 꾀비이다.

미국의 무기판매책동은 새 전쟁도발에 필요한 첨단무기들을 전진배치하여 우리에 대한 군사적압력과 위협의 도수를 가중시키려는데 그 음흉한 기도가 있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총파산에 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대신 어떻게 해서나 그 불을 부지해보고 필사의 발악을 하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최종목표는 북침전쟁을 도발하는것이다. 미국은 힘의 우위에 섰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해보려 하고있다. 앞으로 미국이 남조선에 어떤 첨단대량살상무기들을 또 들이밀지 않을지.

미국이 남조선에 상대로 무기들을 계속 팔아넘기면 그로 하여 남조선이 상상하기 어려운 참혹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는 더욱더 위험천만한 화약고로 전변되어갈것이다. 다시말하면 미국이 전쟁하수인들에게 첨단무장장비들을 넘겨주고 무력을 증강할수록 조선반도정세의 긴장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게 될것이다.

남조선군부장관들을 북침전쟁도발의 돌격대로 계속 내몰다가 임의의 시기에 실전으로 이행하도록 하자는것, 바로 여기에 남

조선에 대한 미국의 신형미사일판매책동의 위협성과 엄중성이 있다.

미국이 무기판매를 통해 노리는 목적은 이뿐이 아니다.

지금 미군수업체들은 판매시장을 확대하지 못해 인달이 나 하고있다.

미국방성뿐 아니라 미행정부도 미군수업체들이 무기판매시장을 확대하도록 보장해주어 그들의 배를 불리워주면서 거간군, 중개자노릇을 하고있다. 남조선은 미국이 노란자위처럼 여기는 무기판매시장으로 되고있다. 미국에 있어서 남조선은 미국산 무기거래에서의 들도 없는 대상으로 되고있다.

일각각을 노린 미국의 무기판매놀음은 우리 거레에게 동족상쟁을 몰아오는 범죄적책동이 아닐수 없다.

반세기 가 훨씬 지난 오늘까지 왜 조선반도정세가 최악의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민족대결이 지속되고있는가 하는데 대한 대답을 여기서도 쉽게 찾을수 있을것이다.

제반 사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이 신형《하퉁》미사일따위로 그 누구를 놀래워보려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우리 혁명력에는 이미 우리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침략자들의 아성을 송두리채 들어낼것이라는것을 증명하였다. 남조선에 무기를 팔아먹을수록 미국방영어의 안전은 더욱 담보할수 없게 될것이다.

평화협정체결은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열쇠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제사상연구소가 우리 공화국과 미국의 평화협정체결을 거부하는 미국을 규탄하여 1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비핵화에 전진히 이룩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는 절대로 접수될수 없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먼저 핵무기를 철폐해야 한다는 미국의 황당한 주장은 평화협정체결을 회피하기 위한것이다.

조선반도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결과이며 미국이 정전협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는 침략전쟁연습들은 조미사이의 신뢰회복과 평화협정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미국은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

미국은 미군과 핵무기를 남조선에서 철거하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지한다!

* * *

민주공화국 외무 및 국제협조성이 우리 공화국의 평화협정체결 제안을 지지하여 최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각서를 보내어왔다.

각서는 공화민주주의의 공화국 외무 및 국제협조성은 1953년 조선전쟁정지협정을 미국의 공교한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방침이 정당하며 이 제안이 접수되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담보되게 될것이라고 간주한다고 지적하였다.

* * *

나이지리아방공화국 정부가 조선전쟁정지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때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제안을 지지하여 얼마전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각서를 보내어왔다.

나이지리아의무성의 명의로 된 각서는 조선반도에서 전쟁발발의 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전쟁정지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에 특별히 류의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이지리아방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모든 제안을 언제나 지지하여왔다.

이런 결지에서 2015년 10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표한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을 매우 중요하고 평명정대할것으로 평가한다.

나이지리아방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큰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을 적극 지지할것이다.

홈페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과 조선로동당장관인 김일홍동지들, 청년전위들의 해외행진기록물을 비롯한 동영상, 우리 나라 노래들 그리고 지적하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소개하는 글과 사진들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로 향한 힘찬 진군

수리아와 에리트레아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소집과 관련한 글을 실었다.

수리아신문 《알 사우라》 10일판은 《조선로동당 다음해 5월초 당 제7차대회 소집,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힘찬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이 창건후 일곱번

제7차대회를 가지게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세계적진 변혁이 일어나고있는 때에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당 제7차대회를 다음해 5월초에 소집할것을 결정하였다.

조선로동당은 70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로선과 원칙을 백년대대의 전략으로 틀어쥐고 혁명적진 변혁을 령도하여 조선인민을 존엄높은 자주적인민으로, 혁명의 위대한 주체로 키웠다.

또한 세기를 이어 계속된 제

슬로벤스꼬 단 제

슬로벤스꼬의 시민단체 《브즈드르가》가 얼마전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홈페이지는 《김일성주석》, 《김일영동지》, 《김정은원수》, 《주체사상》, 《선군정치》란을 설정하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김정일동지의 태양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을 모시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혁명활동사진문헌 80여상을 모시었다.

홈페이지는 백두산천출위인들의 혁명활동사진,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해설하는 글을 편집하였다. 소개, 새 소식, 텔레비전방송, 문화, 음악, 우주연구 등의 단들로 구성된

정의를 위한 성취발견이다

오늘은 팔레스타인민민의 세계대전의 날이다.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의 친선적인 팔레스타인민에게 뜨거운 전 투적인사를 보내고있다.

팔레스타인민은 자기의 성스러운 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래고도 피어린 투쟁을 힘차게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유여폭등도 많이 겪었고 피도 많이 흘렸었다. 그러나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그 실천을 위하여 일떠선 팔레스타인민민의 앞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었다.

팔레스타인민은 팔레스타인해방투쟁의 명도로서 온갖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며 투쟁을 벌임으로써 자기의 합법적인 민족적권리를 되찾기 위한 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단편 범죄자의 생색내기

최근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프랑스대통령 올랑드와의 회담에서 저들도 《이슬람교국가소탕》에 나서겠다고 뽐냈다.

그야말로 범죄자의 생색내기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102명의 사망자를 낸 튀르키예에서의 테로 공격사건, 224명의 희생자를 낸 에리트레아에서의 로지아려격기추락사건, 150여명의 죽음을 가져온 프랑스에서의 연속적인 테로사건들로 하여 지금 국제사회는 테로악당들을 소탕하기 위한 새로운 반테로전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들로 꽂혔다.

《이슬람교국가》라는 테로세력이 증중에 생겨나 수리아와 이라크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독버섯처럼 뿌리내리고 유럽과 중동을 벌든지 추서해놓는것같이 만들어놓고있다.

이러한 부활무모양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군사전문가들과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 튀르키예신문 《씨비호》 등 수많은 언론들은 《이슬람교국가》라는 끔찍한 테로세력이 미국의 대중중대전전략에 의해 생겨났다고 이구동성으로 전하고있다.

수많은 나라들이 10여년동안 강행해온 미국 테로(반테로전)에 의해 테로와 보복의 판무장으로 변해버렸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판관정국이 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죽음을 당하고 피난민의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는가. 유럽과 중동이 일대 수라장이 되고 세계가 어비규환에 빠진것은 미국의 《반테로전》때문이다.

미국이 《이슬람교국가소탕》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세계는 그것이 범죄적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술책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독사는 혀를 벗어도 독이다.

미국이 저들의 범죄적책동을 제아무리 벗어던져 버려도 생색을 내며 오그랑수를 써드 인류에게 저지른 만인륜적이며 반역사적인 죄행은 절대로 벗어던질수 없다.

사람들은 저들이 저지른 만교적악에 대해 사회학 대진 또다시 새로운 강권과 진영으로 세계를 대혼란속에 빠뜨려놓으려는 미국을 규탄배격하고있다.

레토와의 투쟁을 강화할것을 주장

이란대통령 하산 루라니가 최근 한 회담에서 저들도 《이슬람교국가소탕》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테로분자주의의 목적은 이슬람교공포증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깨닫히고 이슬람교는 평화를 지지하고 모든 형태의

강화할것을 주장

테로행위를 반대하는 종교로서 테로분자주의에 의한 류혈사태와 아무런 인연도 없다고 말하였다.

테로분자들을 제거하는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로 된다고 하면서 그는 국제공포증과 반테로전쟁에서 집단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계제패야망실현을 노린 무모한 책동

미국이 세계제패야망에 들며 무장장비개발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최근 UPI통신은 군수독점체인 스텐코크 그러만회사와 미공군 이소항미사일들에 대한 통합형공미사일방위(IAMD)통합시회체를 시험하겠다고 전하였다. 시험에서는 IAMD전투시회체가 메이다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순항미사일들을 추적하는 놀음이 벌어졌다.

또한 최근 이 나라의 UPI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미해군이 군수독점체인 보잉회사와 공동으로 제작한 장거리공대지미사일 《하퉁》에 대한 발사시험을 감행하였다 한다.

이 미사일은 2017년에 미해군에 납입되게 된다고 한다.

한편 UPI통신은 최근 미군이 유라주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합동타격미사일에 대한 시험을 감행하였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이 미사일은 《F-35》전투기에 탑재되게 된다고 한다.

미국이 침략전쟁에 썩먹은 군용비행기배비책동에 발판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최근 미공군은 아시아의 서남부지역에 개항항조기경계관제기인 《E-3》센트럴 블로크 40/45를 배비한데 이어 이를 대로의 작전지역에 배치할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항항조기경계관제기를 만드는 데 27억US\$의 막대한 자금이 랑진되었다 한다.

또한 세계제패야망에 들며 미국이 얼마전 접수한반도미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미사일 종합 제의 아간전투발사훈련 진행 로씨야의 중부군관구 로제트병영이 최근 오렌부르크주에서 《이스칸데르-M》기동전술미사일종합체의 아간전투발사훈련을 진행하였다.

훈련에는 50여명의 군인들과 20대이상의 전투기술기체들이 동원되었다.

훈련에서 군인들은 실전의 분위기에 따라 다른 구분대대의 협동작전을 연마하였다 한다. 19일 중부군관구 공보부가 밝혔다.

수직리착륙무인기 공개 이란에서 최근 수직으로 리착

조속속순항 미사일 시험발사

독할수 있는 무기들을 자체로 개발하여 공개하였다.

《호드호드-3》으로 명명된 새 무인기는 시속 70km로 53분동안 비행할수 있다.

소음이 적고 각종 카메라들이 설치된 무인기는 감시 및 정찰, 구조 및 지형측량 등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한다.

17일 이 나라 부대통령이 밝혔다.

조속속순항 미사일 시험발사 인디아가 얼마전 라제스탄주에 있는 사적장소에서 《브라모스》 초음속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다.

주목을 끄는 재생에너르기개발리용

14명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경제손실액은 세계적인 손실액의 45%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있는 지구온난화를 조해하는 주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화석연료사용에 의한 온실효과가스의 대량적인 방출에 있다.

오늘 이 나라에서나 공업의 동력원으로 되고있는 원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는 연소과정에서 온실효과가스를 방출하고있다.

만일 인류가 경제발전에만 신중을 쓰면서 온실효과가스를 방출량증가 문제를 늦추지 않는다면 이미지에 《중병》진단을 받은 지구에 치명적인 후과가 미치지 못할것이다. 이로부터 국제적으로 온실효과가스를 줄일수 있도록 하는 연소과정에서 온실효과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연소도 재능가한 풍력, 태양열과 같은 에너지를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남아프리카가 깨끗한 에너지자원을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올해 상반기에 태양열과 풍력을 리용한 에너지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한 이 나라 정부는 2025년까지 에너지소비량의 30%를 깨끗한 에너지자원으로 충당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요르단의 남부지역에서 태양열발전소건설작업이 진행되었다. 전력생산능력이 5만 2500kW에 달하게 되는 이 발전소는 다음해 9월에 완공될것으로 예정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2018년까지 재생에너기에 의한 전력생산능력이 180만kW로 늘일것이라고 한다.

네팔에서는 풍력, 태양열, 지열을 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데 힘을 넣기 시작하였다.

정량크에 저장한 다음 조급적발효장르 낸다.

발효장르대에서는 혐기성미생물이 음식물찌꺼기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분해하여 가스를 만들어낸다.

미생물의 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랑크안의 온도를 40℃정도로 유지하는데 부산소산에서도 3주연동안에 걸쳐 발효가 진행된다.

다음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친 생물가스는 가스발동에 적용되며 이 가스는 가스발동에 공급되어 전기를 생산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나라들에서 파쇄기술을 발전시켜 여러가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도 필요한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제반 사실은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여 재생에너지를 개발리용하는것이 막을수 없는 추세로 되고있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수진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당국의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여

파업참가자들은 당국의 계속되는 건축조치로 실업률이 날로 높아지고있는 데 대해 항의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성 일지리를 보장할것을 요구하였다.

영국에서 영국의 런던에서 최근 당국의 그릇된 처사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천명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천명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천명이 참가하였다.

파업과 시위

경향들이 군중을 마구 탄압하였다 한다.

한편 영국의 런던에서 얼마전 당국의 부당한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약 1000명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시내거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학생들에게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배를 전라를 베푼다는 당국의 그릇된 교육정책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그리스에서 당국의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여 시위